# 가오가이거 (무제)

전우찬 졸업영화캡스톤디자인
chan_ent0521@naver.com

**S#1 클럽 공연장**

---

춤추는 사람들로 가득한 클럽 안. 공연 관계자 익준이 애타게 뛰어 다니면서 누군가를 찾는다.
익준이 돌아다니다가 친구들과 웃으면서 지내는 똥 머리 차림의 여자(정은)를 본다. 정은과 눈을 마주친 익준은 발걸음을 빨리 옮긴다.
클럽의 복도 쪽으로 가는 익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간다.

**익준**
준식아?

복도의 끝에는 양팔로 벽을 잡고 분위기를 잡고 있는 준식이 보인다.
화려한 하와이언 셔츠, 왼팔에는 금시계 3 개, 목에는 금 목걸이, 슬링백 그리고 틴트 선글라스 차림을 하고 있는 준식.

**익준**
준식아 공연 시간 다 됐어. 폼 그만 잡고 빨리 가자

익준의 말에 미동도 하지 않는 준식.

**익준**
아...그리고 아까 정은이 봤어

'정은' 이라는 말에 조금 몸을 움찔거리는 준식. 옷을 고쳐 입고 익준에게 간다.

**준식**
(어눌한 목소리 톤) 그 친구가 누구지? 난 모르겠는데.
그리고 옛날 이름 부르지마.
가오 떨어지게

**<TITLE 등장> 가오가이거**

**S#2 클럽 공연장 – 인터뷰 시퀀스 (핸드 헬드)**

---

클럽 안에서 진행되는 인터뷰 (몽타주)

**인터뷰 여 1**

가오가이거요? 아 요즘 잘 나가죠

**Insert 1 – 욕실에서 피자를 먹는 준식 (인터뷰 여 1 – Voice over) *셀카 모드**

**인터뷰 여 1**

처음에 '인스타그램'으로 어그로 끄는 관종이라 생각했는데 자꾸 보니까 재밌더라고요

**인터뷰 남 1**

완전 멋있는 형이죠. (5 만원 짜리 보여주며) 방금 제가 돈 좀 필요한 학생이라고 하니까 돈 주고 갔어요

**Insert 2 – 학교 앞에서 중학생들에게 돈 다발을 나눠주는 준식 (인터뷰 남 1- Voice over)**

**인터뷰 남 1**

'가오에 취한다' 이 유행어도 있잖아요?

**인터뷰 여 2 (단체)**

(제스처를 취하며) 가오에 취한다

**Insert 3 – 본인 방에서 상의 탈의한 채 '난 멋 없는 건 안해!' 라고 소리치는 만취상태의 준식**

**익준**

음..준식이가 예전부터 랩 한다고 설치기는 했었는데 좀 갑자기 저렇게 컨셉충이 될 줄은 몰랐어요.
본인은 부정하는데...제가 알기론 (귓속말 하는 제스처)
저기 쟤 보이죠?

카메라는 친구들과 놀고 있는 정은의 무리를 보여준다

**익준**

학교 다닐 때, 쟤한테 좀 심하게 까였거든요.
왜 사람이 충격을 엄청 받으면 갑자기 바뀐다잖아요? 특히 실연을 당한다거나 그러면...
하긴 쟤도 좀 흘리는게 있어 문제야 문제

(익준의 V..O.) 무대 앞으로 나오는 준식. 거만한 표정으로 슬링백에서 돈 다발을 하나 꺼낸다

**익준**

뭐 저야 좋죠. 준식이가 저래야 돈도 벌고
쟤가 돈을 벌어야 저도 먹고 사니까

**준식**

자자 다들 놀 준비 됐어? (Quick Pan)

**S#3 과실 (준식의 과거)**

---

S#1, S#2 와 다르게 수수한 옷 차림의 준식

**준식**

(익준을 부르며) 야야 이거 한번 들어봐 봐

**익준**

(핸드폰 하며 귀찮아하는 태도로) 싫어 귀찮아

**준식**

좀 부탁할게 응?(노트를 들고 노래를 한다)
영화 한 편 볼래~ 아님 같이 걷기라도 할래?
어때 어때 괜찮지? 딱 달달하고 좋잖아?
(연기 톤)영화 한편 볼래 아님 같이 걷기라도 할래? 크으 죽인다

**익준**

와 방금 명치 한번 때려주고 싶다 진짜
혹시 정은이한테 들려주거나 그런거 하는거면 하지마
개 부담스럽다. 으 역겨워

**준식**

(당황해하면서 강하게 부정) 어이 그런거 아니야 임마.
아무튼 진지하게 어떻게 생각해 러브송으로 싹이지 않아?

**익준**

러브송이...뭐냐 랩퍼가
(전화기 모양 제스처) 요즘 랩퍼들은 이 플렉스(Flex)
이런게 중요하다고. 돈 자랑도 좀 하고
차 자랑 이런거 곧 죽어도 플렉스(Flex) 알겠어?

**준식**

아...뭐 나도 돈 자랑하고 싶은데...돈이 어디있냐

준식 자신의 지갑을 한 번 본다. 지갑에는 5 천원 짜리 한 장이 들어있다.
준식 핸드폰으로 '정은'의 '인스타그램' 계정을 확인한다.

**Cut to 준식의 현재 (클럽)**

**준식**

(어눌한 톤) 씨바. 내가 또 공연하는데 말이야. (슬링백을 보여주며)
목이 또 이렇게 무거워 가지고 말이야
돈이 또 너무 많으면 이게 문제야. 무거워
그러니까 좀 받아가 씨바것들아!

갖고 있는 돈 뭉텅이를 관객들에게 뿌리는 준식. 관객들의 함성소리가 나온다.
거만한 표정을 짓다가 관객석에서 정은과 눈이 마주치는 준식 잠시 생각에 잠긴다.

**S#4 팔정도 (준식의 과거)**

---

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는 준식 (Officially missing you – 긱스).
관객이 한 명도 없다. 익준은 그런 준식을 비웃으며 핸드폰으로 촬영을 한다.

**익준**

네~ 여러분은 지금 폭망한 버스킹 현장을 보고계십니다.
(비꼬는 말투) 이 시대의 사랑꾼
준식씨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.

**준식**
(소심한 목소리) 아 찍지마

**익준**
이거 인스타에 올려야겠다

**준식**
하지 말라니까 그러네

**익준**
어 정은아!

준식의 뒤에 캠퍼스를 걷고 있는 정은이 보인다.
준식 순간 얼굴이 굳는다. 정은은 익준을 반기며 다가간다.
정은을 한참 바라보는 준식

**정은**
여기서들 뭐하는거야?

**익준**
아 얘 랩 하는거 알지? 지금 버스킹하고 있는겨
정은이도 왔는데 한번 들려줘봐

**정은**
오 들려줘. 들려줘

**익준**

그 노래 아까 영화 뭐시기 한 거 있잖아
(의미심장한 표정 지으며) 그거 한 번 들려줘
정은아 너 러브송 좋아하냐?

**정은**

응? 그게 뭐야

**준식**

아 하지마!

**익준**

(준식을 막고)야 너가 노래 한번 들려주면
정은이가 아이스크림 사주겠지
동기들이 이렇게 개 고생을 하는데

**정은**

미친놈 뭔데 뭔데 들려줘봐

준식 정은의 눈치를 살피며 망설인다. 그런 준식을 바라보는 익준

**익준**

빨리 해봐. 쨔샤

**준식**

아이씨...

(마이크를 들며) 영..영..

**정은**

아 지금 시작 하는거야? 무반주?

**준식**

영..영화..

목소리를 가다듬는 준식

**준식**

(눈을 지긋이 감으며 수줍게 노래를 부르며) 영화 한 편 볼래, 아님 같이 걷기라도 할래

좀 바빠? 딱 5 분만

내꺼 할 수 없나

조용한 캠퍼스. 정은과 익준은 입으로 손을 가리며 웃음을 참는다

익준이 먼저 콧방귀를 뀌며 웃고, 정은이 같이 따라 웃는다.

**익준**

아 미친. 됐고 아이스크림이나 사먹자.

이정은 나 하겐다즈 먹는다

익준과 정은 먼저 자리를 떠난다.

준식 멍하니 제자리에 서 있는다

**S#5 클럽 공연장**

(S#4 의 마지막 컷과 동일한 사이즈로 시작) 공연을 마치고 땀을 흐르고 있는 준식. 무표정이다.
그의 앞에는 '앵콜'을 외치는 사람들이 보인다. 공연장의 뒤편에 정은이도 같이 앵콜을 부른다.
준식 잠시 숨을 가다듬다 마이크를 쥔다.

**준식**

아니 쒸발. 앵콜을 원하는데 고작 이것밖에 소리 안 내!

준식의 '쒸발' 소리에 높아진 함성소리
함성소리에 괴상한 몸짓을 하는 준식

**준식**

오케이 오케이 고마워.
내가 공연하기에 앞서. 듣보잡 시절 때 만든 러브송이 있어
돈 없을 때, 막 당시에 좋아하던 애 꼬실려고 만든 노래인데 이제야 너희들한테 들려주게 되었네?
그 당시에는 그애를 진짜 좋아 했었어
그때는 말이야... (잠시 생각에 빠지다)

준식의 '좋아 했었어' 라는 말에 관객들의 '이열' 이라는 소리가 들린다

**준식**

(헛웃음 지으며) 이거 처음에 녹음할 때 내 자신이 너무 찐따 같았는데 말이야
아무튼 뭐 한 번 들어봐봐. 내 순결한 목소리를 가득 담아 불러줄게.
이거 또 듣고 새벽에 DM 보내면 곤란하다 알겠지?
아직까지도 팔로우 안 한 애들 있으면 팔로우들 해주고

(윽박지르며) 알겠어?
자 부른다 빠끄

잠깐 망설이는 준식. 이전과 다른 분위기로 마이크를 잡는다.

**준식**

(노래를 부르며) 영화 한편 볼래? 아님 같이 걷기라도 할래 ?
좀 바빠? 딱 5 분만

이전과 다른 준식의 분위기에 숙연한 관객들
정은과 눈이 마주치는 준식 잠시 머뭇거린다.

**준식**

5 분만...5 분만...
씨바 당연히 바쁘지. 하루에 행사를 몇 개 뛰는데 어?
(웃통 벗으며) 다 같이 뛰어!

트랩 음악이 나오면서 공연장을 뛰는 준식. 관객들의 함성소리

**S#6 대운동장 (잔디 운동장)**

---

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익준 / 준식 / 정은

**정은**

너희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공연하고 음악 하는거야?

**준식**

어..나중에

**익준**

(준식의 말을 끊으며) 취미로 좋아하는 거지.
랩퍼 아무나 하나. 요즘 애새끼들이 다 학교 자퇴하고
너도 나도 랩 한다 이러는데. 우리가 어떻게 이겨?
얘 쇼미 나가면 초딩들한테도 질걸?

**정은**

그래? 난 랩은 잘 모르겠다
막 너희가 명반이다 하는 노래들 들어봐도 그냥 그렇고

**익준**

빈지노는 좋아한다며?
이런 얼빠들 때문에 힙합이 죽어가는거야

**정은**

아 빈지노는 멋있잖아

**준식**

.너는 그러면 어떤 노래 좋아하는데

**정은**

글쌔... 밴드음악도 좋아하고..음 그리고 요즘은 방탄? 개 잘생겼어

정은 자신의 핸드폰에 있는 '방탄소년단' 핸드폰 배경화면을 보여준다
정은의 '방탄' 소리에 익준 크게 탄식을 한다.

**정은**

(익준을 치며) 아 너희들이랑 다르게 우리 방탄은 멋있거든

정은을 계속 바라보는 준식.

**준식**

방탄소년단...

**익준**

아오 ...내가 이런 음알못들이랑 같이 있는게 너무 수치스럽다.
나 잠깐 화장실 좀.

**정은**

(당황해하며) 어? 나도 같이 가

**익준**

뭔 소리야 나랑 화장실을 왜 같이 가

자리를 떠나는 익준
나란히 있는 준식과 정은 어색한 분위기가 돈다.
정은은 핸드폰만 만진다.

**준식**
정은아?

**정은**
왜?

**준식**
(어색한 말투) 아.. 아까 노래 어땠어?

**정은**
(핸드폰을 보며 무심한 말투) 노래? 무슨 노래?

**준식**
그 팔정도 쪽에서 부른 거..
그거 좀 오글거렸지?

**정은**
모르겠다. 아까 들었다시피
난 음악 잘 몰라서

**준식**
그렇구나

준식 정은을 바라보다가 말을 이어나간다.

**준식**

그 노래 있잖아 그거 너 생

**S#7 클럽 공연장 (화장실 / 바 쪽)**

---

공연을 마치고 티셔츠를 머리에 쓰고 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하며 퇴장을 하는 준식.
퇴장하면서 사람들이 '사랑해요' 와 같은 응원 소리를 낸다.
익준 준식에게 다가간다.

**익준**

(준식에게 수건을 주면서) 잠시 지나가겠습니다.
야 준식아 고생했다.

**준식**

(수건으로 땀을 닦은 후 익준에게 준다) 자 여기
나 잠깐만

**익준**

(굽신 거리며) 어 어 알겠어

화장실 쪽에서 잠깐 쉬고 있는 준식.

**정은**

준식아?

뒤를 돌아보는 준식. 표정이 잠시 흔들리다 다시 특유의 쎈 표정을 짓는다.

**정은**

나 정은이야. 이정은

와 몰라봤다. 공연 대박이던데?

**준식**

(다시 컨셉을 잡고 거들먹거리며) 아 정은이구나.. 요즘 별의별 여자들이 꼬여가지고

정신이 없어 가지고 말이야

웬일이야? 너도 싸인 몇 장 해줘?

이거 몇 개 팔면 원룸 월세 나온다?

**정은**

(웃으면서 준식의 몸을 친다) 미친 개 웃겨

아까 중간에 무반주로 노래 불렀던 거

(준식의 눈치를 살피며) 그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나한테 들려줬던 거 아니야?

그 영화 한 편 뭐시기

**준식**

뭐?

**정은**

왜 그거 예전에 너가 학교에서 들려줬던 거

**준식**

(천천히 줌인 하며 클로즈업) 아 씨바 가오 떨어지게 옛날 얘기하네

**정은**

아 그래? 아니면 말고. 아무튼 잘 봤다
종종 연락해

홀연히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는 정은.
준식 정은의 뒤를 본다.

**준식**

저..정

**팬 1**

형 싸인 한 장만 해주세요!